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 끝없는 사랑 주님은 신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다같이
대표기도		안혜성
*성경봉독	고전 3:1-3	허소정
말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II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Goodness of God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oh-oh)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th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II (고전 3:1-3)

1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2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우선, **섬기는 리더십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의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사건 (세족식)은 예수님의 섬김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당시 기준으로나 현대의 기준으로나 모두 선행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인 발을 닦는 것을 선생이신 예수님을 보이신 것은 그 분이 진실로 섬기기 위해 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진실로 섬기셨기에, 섬김을 받으실 때 섬기는 자의 마음도 잘 헤아리셨습니다. (예,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서로 섬기라' 입니다.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섬김의 삶은 욕심을 제어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사람은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람** (혹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 중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원수들을 용서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마18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

용서는 용서받는 자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꼭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영에 속한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되, 모두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는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주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가 깨지면, 내 마음의 화평도 깨어집니다. 이를 생각하면, 앞서 언급한 용서와 마찬가지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화평이 유지되는 것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라고 하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보면 자칫 사람들에게 내가 휘둘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군중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피할 수 없는 마찰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The True Master). 성경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속에 정립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단단한 영적 사람들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한다는 점이 그리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땐 하나님이 날 완전히 잊으신 것같이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신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 한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으신 완전한 본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는 죄인이 겪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생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기워졌을 때, 이미 예수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요 19:11).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름답기까지 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버려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 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요 16:32)." 예수님조차 이 고백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 말씀산책

성경의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되면, 그 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아무런 조건도 요구치 않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 선하심이 우리 삶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섬김을 잘 감당하나요? 나의 섬김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은 혹시 없나요?
2.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세요.
3.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균형감각은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4.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과 같은 때 하나님을 붙잡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부 수련회

기간: 3/10(금,저녁)-3/12(일,오후)  
장소: 캠프버크너 (Camp Buckner)  
3835 FM2342, Burnet, TX 78611  
회비: early registration(by 2/18) - 학생 \$70/일반 \$75  
regular registration(from 2/19) - 학생 \$85/일반 \$90

수련회 사인업 QR(Retreat sign up)



창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음악회

3월 4일 (토) 오후 4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봉사 신청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세대 교사 세미나

2월 18일(토) 오후 2시, 2층 유년부 예배실  
강사 : 연수진 권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교사 경력 30년)  
모든 다음세대 교사들 및 관심 있는 분

재정부

2022년 헌금 내역을 원하시는 경우 헌금 내역 신청서에 기입  
문의 : 최병진 장로 (cbjkym@yahoo.com)

주차관리부

주일 주차 안내 및 관리 봉사자  
문의 : 최병진 장로 512-497-7644

팀원 모집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문의: 조학영) ---->  
미디어팀 - 매주일 청년부 예배 전 주보를 프린트 해주실 분



찬양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